

핸드 OST 최초 빌보드 '핫 100' 진입

BTS 뷁, 새 역사 썼다



방탄소년단의 뷁.

역시 '글로벌 파워'는 넘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뷁가 부른 SBS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 OST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가 한국 드라마 OST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5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뷁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핫 100' 최신 차트(8일자)에서 79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빌보드 톱 셀링 송'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뷁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 슈가 '대취타', '걸 오브 마이 드림스'(Girl of My Dreams)에 이어 세 번째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 솔로로 이름을 올린 멤버가 됐다.

앞서 뷁는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Official Singles Sales Chart)와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Official Singles Download Chart)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차트에서 한국 솔로가수가 세운 최고의 기록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드라마 첫 회부터 최음(최우식)의 작업실에서 나오는 LP곡으로 등장했고,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 더 풍성해진 2022년 KLPGA

5개 대회 상금 커지고 2개 대회 신설 가다

2개 대회가 신설됐고, 5개 대회는 상금을 증액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상금 300억 원을 돌파했다.

2022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한층 풍성해졌다.

새해 KLPGA 투어는 4월 7일부터 나흘간 롯데스카 이힐 제주에서 열리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 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9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돌입한다. 총 33개 대회에 총상금 305억 원, 평균상금 9억 3000만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대회 수는 지난해 29개에서 33개로 4개가, 총상금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작년 269억 원보다 36억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변수 등을 뚫고 계획대로 모든 일정을 소화한다면 역대 최대 대회 수에 사상 최초로 총 상금 300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 신설된 대회는 개막전에 이어 2번째 대회로 열리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4월 14~17일, 페덱 C·총상금 10억 원)과 10월에 개최 예정인 총상금 15억 원 이상의 신규 대회 등 2개로 잠정 확정됐다.

기존 대회 중 총상금이 증액된 대회도 5개나 된다. 오랜 전통의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과 '하이테크 챔피언십'이 각각 총상금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S-OIL 챔피언십'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하며 규모를 키웠다. 이 밖에도 몇몇 대회 스폰서가 상금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시즌 총상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대만여자오픈'(총상금 80만 달러·9억 5000만 원)과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총상금 10억 원) 등 해외에서 3개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단 12월 열리는 세 대회는 2022시즌 최종전 종료 후에 열리기 때문에 2023시즌으로 편입된다.

KLPGA 집행재 회장은 "올 시즌도 지난해처럼 안전한 투어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투어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각종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 투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이벤트와 특색 있는 대회를 개최해 골프 팬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KLPGA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2번째 올림픽 앞둔 '쇼트트랙 에이스 듀오' 최민정-황대헌

“역시 한국 쇼트트랙 강하다는 것 증명할 것”

‘월드컵4차 쉼’ 건재 과시한 최민정 “부상 회복, 더 좋은 성적 자신있다” 500m 첫 금메달 기대 되는 황대헌 “땀세 이겨낼 수 있도록 극한 훈련”

“역시 한국 쇼트트랙은 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24·성남시청)은 5일 인천선수촌 빙상장에서 진행된 2022년 첫 훈련에 앞서 출사표를 던졌다. 부상 등의 여파로 2021~20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은 모두 지운 듯했다. 2월 4일 개막할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의 준비과정을 전할 때는 결연함마저 느껴졌다.

최민정은 명실상부한 한국 여자쇼트트랙의 에이스다. 첫 올림픽 무대였던 2018년 평창대회 여자 1500m와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다. 올림픽 전후에도 워낙 페이스가 좋았던 터라 그의 장기 독주를 의심하는 시선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여러 문제로 실전감각 유지에 애를 먹었지만, 2021~2022시즌 ISU 월드컵 4차 대회(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 여자 1000m 금메달로 건재를 과시했다. 올림픽 직전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한국 남녀쇼트트랙의 간판스타들이 의기투합했다. 5일 인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최민정(왼쪽)과 황대헌은 '역시 한국 쇼트트랙은 강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파면 금메달은 자신감을 끌어올려주기에 충분했다.

최민정은 “이제 베이징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부상에서 회복하고 준비기간은 충분했다. 좋지 않은 영향은 전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2000m 혼성계주가 추가돼 종목도 늘었으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자쇼트트랙의 에이스는 황대헌(23·한국체대)이다. 첫 올림픽 무대였던

평창대회에선 금메달을 놓쳤지만, 최근의 페이스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올 시즌 월드컵 1·3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남녀부를 통틀어 1994년 릴레함메르대회 당시 차지한 이후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500m에서 금맥을 캐낼 적임자로 꼽힌다.

황대헌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고 싶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특정 종목을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잘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땀세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쇼트트랙대표팀의 훈련장에는 결전지인 베이징에서 열린 올 시즌 월드컵 1차 대회 당시 녹음한 현장음이 흘러나왔다. 하루빨리 현지 분위기를 익히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코치진은 실 틈 없이 랩타임을 켜고, 최민정과 황대헌 또한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다.

최민정은 “최근에 ‘쇼트트랙이 부진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역시 한국 쇼트트랙은 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황대헌은 “에이스라는 말을 들으면 책임감이 더 커진다. 그 무게만큼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에이스 듀오’의 힘찬 목소리에 훈련장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사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베이징올림픽 한달 앞으로…팀코리아의 난제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장도 “선수단이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체육회가 내건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목표는 최대 금메달 2개, 종합순위 15위권이다. 지난날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목표와 다르지 않다. 조직위의 폐쇄적 운영에 따라 코스에 영향을 받는 썰매 종목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이



5일 인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 도중 스피드스케이팅 김선형, 쇼트트랙 이유빈, 권윤기(왼쪽부터)가 공식 단복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희망은 “금메달 1~2개 정도를 보고 있다. 물론 더 따면 좋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금메달 1~2개가 합리적인 숫자”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회들과 비교하면 기대치를 크게 낮춘 것이다.

그래도 태극전사들의 의지는 다부지다. 오히려 부담을 내려놓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자컬링국가대표 김선영(강릉시청)은 “부담 없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여자쇼트트랙국가대표 이유빈(연세대)은 “금메달 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도 개인별 목표를 잡고 훈련 중이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 더 많은 메달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34세 해결사’ 김선형, 공격형 가드의 정석

(서울 SK)



‘역시 플래시 썸!’ SK 김선형은 4일 현대모비스와 원정경기에서 ‘에이스 모드’를 발동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형 가드의 표본인 그는 베테랑의 노련미까지 더해 개인 2번째 우승반지를 노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스피드·개인이 다가온 11년차 베테랑 현대모비스전 4Q 15점·결승골 빅쇼 “통련한 형들 보니 답은 결국 훈련뿐”

서울 SK 포인트가드 김선형(34·187cm)은 4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 울산 현대모비스와 원정경기에서 이틈없을 득점을 했다.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승부처였던 4쿼터를 그가 지배했다. 4쿼터 10분 동안 3점슛 3개를 포함해 15점을 쏟아냈다. 1점차로 뒤진 종료 1.4초 전에는 1대1 돌파에 이은 감각적인 플로터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플래시 썸’이라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은 활약으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KBL 무대에서만 11시즌째 활약 중인 김선형은 신인이었던 2011~2012시즌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탁월한 운동능력과 스피드, 뛰어난 개인기를 갖춘

그는 공격형 가드가 많지 않았던 KBL에 새바람을 불고 왔다. 화려한 플레이 덕분에 ‘플래시 썸’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SK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고, 남자농구대표팀의 일원으로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2017~2018시즌에는 팀과 함께 챔피언 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어느덧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김선형. 그러나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형 가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 29경기에서 평균 13.0점·2.5리바운드·5.9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다. 개인통산 기록(평균 13.1점·3.1리바운드·4.6어시스트)과 큰 격차가 없다. 이번 시즌 2라운드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선형은 5일 스포츠동아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모비스전 4쿼터는 모처럼 마음먹고 한 번 해봤다. 오랜만에 에이스다운 경기를 한 것 같다”며 웃었다. 이어 “시즌 도중 다소 부진을 겪었는데, 코칭스태

프와 많은 얘기를 나누며 이겨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운동능력과 경기력을 유지하는 비결로는 훈련을 꼽았다. 그는 “함께 했던 주희정 선배 등 리그에서 장수한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 결국 훈련이었다. 시즌 도중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등 훈련량을 늘린 덕분에 아직은 운동능력이 유지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김선형은 최근 리그에서 늘어나는 젊은 공격형 가드들 가운데 고양오리온 신인이 정현(23)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내 신인시절과 비교하면 어시스트는 더 좋은 것 같다. 맞대결을 해보면 이정현은 자신감이 엄청나고, 기량이 좋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좋은 후배들과 가드 맞대결이 흥미롭다는 그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의 경쟁력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 기대된다. 다시 한번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인 2번째 우승 반지를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